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9호 2022년 07월 20일(수)/계간

발행인 · 황윤원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대상 | 아름다운 하늘 | 임상병리학과 조아름



최우수상 | 중원대학교의 아름다운 풍경 | 항공기계공학과 김태훈



우수상 | 봅니다 뭐든 보면 좋아요 | 간호학과 이희수

▲'I LOVE 중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지면안내

Campus News

02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최종 선정!
02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기념 행사 개최
02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규 선정!
03 개교 13주년 기념식 개최!!
03 '전국대회 창단 첫 준우승' 축구부 환영식 개최!
03 '2022학년도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03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
04 2022학년도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04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04 펜싱부, 반지현 학생 국가대표 선발!
04 박물관, 2022년 한국박물관협회 지원사업 2개 부문 2년 연속 선정!
04 박물관,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
05 제13기 학생홍보대사 '가람' 발대식 개최!
05 장애학생지원센터, 총장님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05 학생홍보대사, 스승의 날 앞두고 깜짝 이벤트 개최!
05 취창업지원센터, 제1기 취창업지원센터 서포터즈단 발대식 개최!
05 축구부 박환희 선수, '덴소컵 한 · 일 대학축구 정기전' 대표 선발!

Major News

06 지역혁신사업 이홍연 전무이사 초청특강 개최
06 前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석좌교수 특강 개최!
06 간호학과 동아리 '나누리',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나눔릴레이' 캠페인 펼쳐~
06 경찰행정학과, 2022학년도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 개최!!
07 작업치료학과, 치매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행사 개최!
07 작업치료학과, 실종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인식표 찾기 행사 가져~
07 의료뷰티케어학과, '제19회 2022 국제미용대회' 대상 등 다수 입상 쾌거!
07 항공기계공학과 안석환 교수, 2022 한국동력기계공학회 논문 발표 우수상 수상!!

Social News

08 사회봉사단, 2022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08 총학생회, '예술작품 공모전 Artist, j.w' 행사 개최!
08 박물관, 4월 봄맞이 문화가 있는날 전시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인간, 자연-황연화 초대전 개최
08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 선포식 개최!
08 지역사회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MOU

09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09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협약체결!
09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탄소중립 교육 · 문화 확산 위해 맞손!
09 연극영화학과-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MOU 체결!
09 충북 미래 농업농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중원대4-H 창단식 개최!
09 (주)알에이치포커스, 항공전문인력 양성 맞손!
09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학 · 군 제휴 협약체결!
09 중국 린이직업대학교와 업무 협약체결!
09 (주)낫소와 스포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맞손

Life in JWU

10 대학생 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
11 전체대면, 중원대학교 어떠신가요?
12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첫 체육대회

Our Story

14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NCLEX-RN과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와 팬데믹(코로나19)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봐요!
16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하랑' 항공운항학과 홍보부 'CIELO'를 소개합니다!
17 해외여행 편하게 가고 싶어? 비행기 탈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

Special

18 고맙습니다. 교수님들께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19 발전기금 안내

20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최종 선정!



▲중원대학교 정문 사진.

6월 7일 우리 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2~2024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52개 대학 대상으로 재평가에 지원한 대학 중 중원대를 비롯한 일반대 6개교를 선정하고, 최종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24년까지 3년간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지표로 10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40점은 올해부터 3년간 대학이 추진할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 ▲교육과정 등 계획을 정성 평가했다.

특히 이번 재평가는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지난해 본평가와 달리 서면과 대면평가로 실시됐으며, 대면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위원이 대학들에게 충분한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해 공정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 대학교는 교육 혁신 전략인 입학 준비부터 졸업까지 나를 알고 자발적, 주도적, 협력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양교육과 지역사회 협력 및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공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황윤원 총장은 "지난 본 평가에서 정량진단의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해 학생들과 졸업생 및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함께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 선정으로 다시금 학교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특성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혁신 전략 및 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중원대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규 선정!



▲중원대학교 전경.

6월 3일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유형 II)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선정해 정부가 대입 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은 2년간 재정지원을 받으며,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로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교는 올해 사업에 신규 선정돼 2억 5천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 충원을 통한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강화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성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전형의 운영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입학사정관을 신규채용하며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대입전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개편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공체험 프로그램, 정보소외 및 취약지역 대상의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실있는 대입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우리 대학교 강종훈 입학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발맞추어 대입 전형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만 충실히 임해도 입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기념 행사 개최



▲중강당에서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기념행사 후에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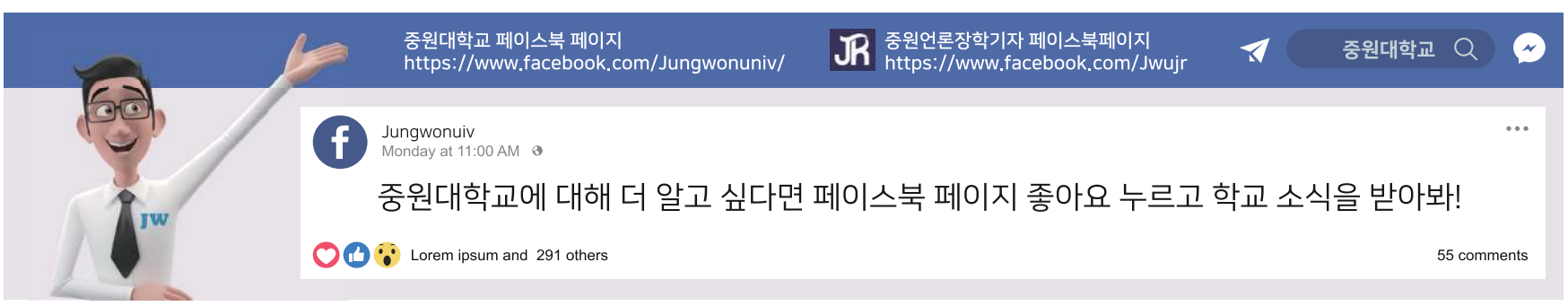
우리 대학교는 6월 15일 교내 중강당(상생홀)에서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우리 대학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데 공헌한 기여자를 포상하고, 전 대학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으로 대학교육 혁신 의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안성준 이사장, 우리 대학교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예의 수상자는 집필위원 △김철수(종교문화재학과, 부총장) △안병환(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김형수(전기전자공학과) △염지혜(교양대학 역량교양학부) △김남영(간호학과) △이종호(대학교육혁신본부) △류다영(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유경미(아동보육상담학과) △한상훈(산학협력단) △이창희(소방방재학과) △김남일(대학교육혁신본부) △윤대위(임상병리학과) △이승현(산학협력단) △곽은미(간호학과) △조성훈(기획팀) △조동현(교무팀) △우정현(학사팀) △최준열(혁신교육지원팀) △정다운(혁신교육지원팀) 등 총 19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안성준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대내외적 역경 속에서도 학교발전을 위해 애써준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소중한 중원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매진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돕고 화합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윤원 총장은 격려사에서 "먼저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재단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게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중원대의 미래교육 도약과 혁신을 위한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개교 13주년 기념식 개최!!



▲제13주년 개교기념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가 5월 4일 교내 상생홀에서 '제13주년 개교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변준호 법인사무국장, 황윤원 총장, 김철수 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주요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국민의례, 공로상 수여, 근속상 수여, 감사패 수여, 이사장 격려사, 총장 기념사,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리 대학교는 공로상을 △간호학과 곽은미 교수 △생활체육학과 이세인 교수 △일반대학원 전춘련 교수 △학생원스톱센터운영팀 민수임 주임 △시설관리팀 이병우 직원에게 수여하고, 근속상에는 △대학원 행정팀 안희순 주임 △승마교육원 이재용 직원 △간호학과 임소혜 직원 △시설관리팀 정병혁 직원에 이어, 감사패는 △괴산군청 신미선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수여했다.

황윤원 총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에서 해원상생과 성·경·신의 창학이념으로 참된 인성과 덕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3년간 모든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주신 업적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기본적인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본격적인 비상의 날개짓으로 날아오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직 학생이 먼저인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 줄 우리의 미래인 사랑하는 학생들과 법인, 교수, 직원 모두가 13주년 개교기념을 맞아 우리 대학의 자부심을 갖고, 서로에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축제의 장, 진정으로 학생이 먼저인 대학, 가슴을 펴고 뛰는 대학,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키우고, 커나가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데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전국대회 창단 첫 준우승' 축구부 환영식 개최!



▲축구부 감독님이 대진교육재단 법인 국장님께 준우승 격려금을 받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3월 15일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준우승을 차지한 축구부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식을 개최했다.

축구부는 2월 27일 지난 대회 우승팀인 광주대와의 결승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최종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축구부 학부모 대표, 전 축구 국가대표 최진철 감독, 이을용 감독, 변준호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학교 주요 보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구부 선수단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황윤원 총장은 축구부 이세인 감독 및 코치진, 선수들로부터 준우승 트로피를 전달받고,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의 격려금(₩30,000,000원)을 축구부 선수단에 전달했다.

이세인 축구부 감독은 "지난 2013년 팀 창단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원팀' 정신이며, 이번 성과는 선수뿐만 아니라 중원대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함께 이루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거듭 성장하는 축구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황윤원 총장은 축사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되게 학생 선수들을 대하는 코치진의 탁월한 지도력과 이를 믿고 훈련에 전념한 선수들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학교의 명성을 드높인 축구부 선수단이 자랑스러우며, 이번 준우승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축구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2학년도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학교 구성원들이 체육 대회를 즐기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교내 운동장 일대에서 건전한 인성함양과 일체감 및 협동심을 드높이기 위한 '중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제11대 '한결' 총학생회(회장 한상훈) 주관으로 펼친 이번 체전은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괴산군 민영완 부군수, 괴산군의회 신동운 의장, 괴산경찰서 김동수 서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홍경석 행정부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종렬 교육장, 괴산문화원 장재영 원장, 시장상인회 이정우 회장 등 각 기관장들과 대학구성원 포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8일 체전 개회식을 선포했다.

이번 체전은 종목별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작업치료학과와 충북광역치매센터가 진행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괴산군 일자리 센터와의 기업체 채용설명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괴산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마음건강 종합검진 및 상담 등 건강체험관리 부스운영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먹거리장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건강과 심신을 위로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황윤원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년에 중원대는 축구부의 창단 첫 전국대회 준우승을 시작으로 연일 좋은 성과들이 나오며 생동감 넘치는 학교, 학생이 먼저인 대학으로 비상하는 가운데 이번 체전에서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에 더욱 기쁘고 행복하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밝은 미래는 건강한 학생들이기에 항상 심신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성함양을 갖춘 중원인으로 거듭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4월 11일 우리 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지역 특화산업 분야)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전문학사, 석·박사 학위과정 등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총 50개 대학 78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함에 따라 17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산업구조 변화 대응 및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계약학과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융합기계전기전자부품공학과' 학사 과정을 비롯해, 이번 신규 사업에 선정된 '바이오헬스산업학과' 석사 과정까지 개설해 바이오헬스 산업 시스템 운영관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계약학과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실무형 인재를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확산을 통한 선순환 산학융합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 맞춤 교육과 실무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혁신 선도 등을 통해 충북지역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편집부〉

2022학년도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우리 대학교는 6월 8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윤원 총장, 김철수 부총장, 김형수 교무처장이 참석하여 신임교원 4명에게 환영인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임교원 및 참석자 소개, 임용장 수여, 환영 및 격려사,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하고, 학교현황 및 주요사항 안내, 캠퍼스 투어를 이어갔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은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개발원 ▲배기호 교수 ▲윤성호 교수 ▲김대중 교수와 융합과학기술대학 말산업학과 ▲박헌식 교수 등 4명이다.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황윤원 총장은 "우선 중원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교수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의 역할 제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우리 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3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며, 학기 중 이른 통학 시간과 생활관 입사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위한 학생복지사업의 하나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 및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급식업체 ㈜중원인과 함께 5가지 간편 이동식 메뉴를 개발하여, 교내 '카페테리아'와 '컵밥 앤 토스트'에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괴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과의 상생 및 학생 건강 챙기기를 진행하며, 아침밥을 충분히 마련하여 학생들이 수량제한 없이 양껏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아침에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고 있다.

황윤원 총장은 "학생이 먼저인 대학을 표방하는 중원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넘치는 다양한 아침밥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학업과 건강을 챙기는데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펜싱부

반지현 학생 국가대표 선발!

우리 대학교 펜싱부 소속 반지현(무예경호학과 1) 선수가 3월 7일 청소년 국가대표(에뻬)에 선발됐다.

이번 2022학년도 우리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한 반지현 선수는 고교 시절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국가대표(에뻬)에 최종 선발되었다.

반지현 선수는 "중원대 펜싱부 소속으로 선배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원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수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송은일(펜싱부 감독) 무예경호학과 교수는 "창단 3년차 신생팀인 중원대 펜싱부에 좋은 선수가 입학하여 앞으로가 기대된다"며, "우리 대학 펜싱부 선수 학생들이 학업과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반지현 학생에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학의 명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하여 4년간 전액장학금(J-스타 장학금)을 수여했다. 〈편집부〉


▲총장님과 반지현 선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물관

2022년 한국박물관협회 지원사업 2개 부문 2년 연속 선정!


▲박물관 전시 사진.

3월 29일 우리 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주희)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과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박물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인력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히 2022년에는 우리 대학교 박물관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학예인력과 교육인력까지 모두 선정됐다. 또한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한 날로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 우리 대학교 박물관은 〈중원에서 특별한 하루, 박물관 가는 날!_자연과 역사가 숨 쉬는 괴산 문화몽(夢)〉을 운영하며 지역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시행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우리 대학교 박물관(http://museum.jwu.ac.kr) 또는 학예연구팀(043-830-8284)으로 하면 된다. 〈편집부〉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선정!


▲5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주희)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은 대학 내 문화자원 및 연구자원을 활용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박물관의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교내 구성원 등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화 복지 및 문화 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100개 대학박물관 회원관 중 17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2022년 "자연을 품은 박물관_문화와 通하다"를 진행할 우리 대학교 박물관은 괴산지역의 특색인 자연 및 역사자원과 박물관의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교육·공연·강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충북의 초·중등학생, 다문화가정, 실버계층, 문화적 소외계층, 지역주민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시_자연예찬 특별전 Ⅰ~Ⅲ(오프라인 3회, 온라인 3회), 교육_문화체험 힐링 나들이 Part Ⅴ(5회), 공연_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Ⅰ~Ⅱ(2회), 강연_괴산의 기억_임꺽정부터 동양헬스장까지 Ⅰ~Ⅱ(2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문의 사항은 우리 대학교 박물관(043-830-8284~6)으로 하면 된다. 〈편집부〉

제13기 학생홍보대사 '가람' 발대식 개최!

우리 대학교는 3월 16일 제13기 학생홍보대사 '가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가람'은 '강'을 뜻하는 순우리말로써 강이 바다가 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학생 홍보대사로서 '영원히 흐르는 업적을 만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임명장을 수여받은 제13기 학생 홍보대사 5명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로 중원대를 대표해 대학의 주요 행사 의전,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참가, 캠퍼스 투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현장 홍보활동과 대학 공식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우민형(융합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홍보대사는 "임명장을 총장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셔서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원 총장은 격려사에서 "우선 애교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12기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오늘 임명장을 받은 13기 학생 홍보대사 가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학생홍보대사 '가람'의 뜻처럼 영원히 흐르는 업적을 만들기 위하여 참신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하여 학생홍보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제13기 학생홍보대사 발대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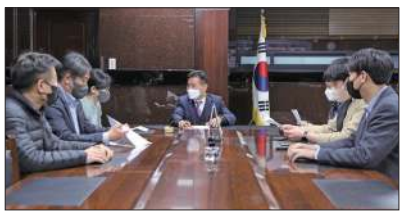
총장님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유영재)는 4월 20일에 총장실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2학년도 제1차 장애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대학교 장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는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유영재 장애학생지원센터장, 한상훈 총학생회장, 장애학생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장애학생은 "대학생활을 하며 느끼는 불편사항을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유영재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올해는 장애학생들과 간담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히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교내 경사로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모두 반영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대학생활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원 총장은 "학생이 먼저인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학교정책에 반영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든 대학 구성원이 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 장애학생들이 총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장애학생이 대학생활 중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편집부〉

취창업지원센터

제1기 취창업지원센터 서포터즈단 발대식 개최!

우리 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하은호)는 5월 30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제1기 취·창업지원센터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활한 취·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 5명을 취·창업지원센터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위촉된 서포터즈들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재학생들에게 교내·외 각종 취·창업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안내, 행사지원 및 정부 청년고용정책과 청년 취·창업 관련 시책 등 취·창업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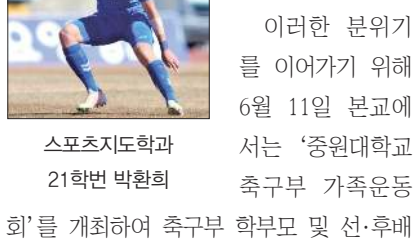
▲취창업지원센터 서포터즈 발대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서포터즈단과 함께 취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체계 구축, 행사지원과 참여, 수요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취·창업 정보 제공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취·창업지원센터 홍보 서포터즈로 선발된 대표 한세아(간호학과 3) 학생은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전개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하은호 취창업지원센터장은 발대식에서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 학생들의 끼와 능력을 발휘해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과 취·창업지원센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류를 통한 취창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취창업지원센터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학생홍보대사

스승의 날 앞두고 깜짝 이벤트 개최!



▲스승의 날 이벤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가람'은 본관 회의실에서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날을 앞둔 5월 12일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홍보대사들이 학교를 대표해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보직 교수님들을 모시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며, 그간 연습한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스승의 날 의미를 새겼다.

황윤원 총장은 "학생홍보대사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찾아와서 해 준 깜짝 이벤트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학생이 먼저인 대학으로 항상 오늘처럼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깐부 같은 총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민형 학생홍보대사 회장은 "스승의 날이 휴일이라 미리 앞당겨서 스승의 은혜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고맙고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축구부

박환희 선수,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대표 선발!

우리 대학교 축구부(감독 이세인) 박환희(스포츠지도학과 2학년) 선수가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덴소지역에서 개최하는 '제17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에 대표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덴소컵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학축구 친선전으로 대학 선수 가운데 우수한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 선발된다. 이번 대회에 박환희 선수는 지난 2월 통영에서 개최한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과 함께 대회 득점왕을 수여하는 등 많은 기대감 속에 선발됐다. 박선수는 "부족하지만 중원대 대표로 그리고 한국 대표로 뽑히게 되어서 영광이고 하나라도 자세히 알려주시는 감독님, 코치님께 훈련시간과 경기 때 배운대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축구부 이세인 감독은 "중원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덴소컵 대표선발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환희 선수가 한일전 라이벌 경기에 좋은 경기력으로 팽팽한 전적의 균형을 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지도학과
21학번 박환희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6월 11일 본교에서는 '중원대학교 축구부 가족운동회'를 개최하여 축구부 학부모 및 선·후배들 간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지역혁신사업 이홍연 전무이사 초청특강 개최

우리 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는 3월 23일 16시 상생홀에서 이홍연 전무이사((주)선일다이파스)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기업의 혁신 활동과 미래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전기차(EV) 및 수소연료전지차(FCEV)의 부품개발 사례와 스마트 팩토리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였으며 5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홍연 전무이사는 미래 인재상으로 갖출 덕목으로 ▲기본기가 충실한 인재 ▲4차 혁명 시대 디지털 감각을 갖춘 인재 ▲Global 감각을 갖춘 인재 등에 대하여 특별강의를 진행하며, "스펙, 실력보다도 겸손한 인성을 갖추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특강을 주관한 이홍찬 교수(학과장, 공공서비스 ICT 트랙 주임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생존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특강 후 이홍연 전무이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자율과제, 舊)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공공기관-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편집부〉

前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석좌교수 특강 개최!

우리 대학교는 4월 27일 오전 11시 상생홀(중강당)에서 전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진성 중원대 석좌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경찰행정학과 특강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문희태)에서 마련한 이번 특강은 '헌법과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 보장, 기본권 관련 주요 위헌 결정, 경찰력 행사 관련 헌재 결정 사례 등을 다루며,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의 확장과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성 교수는 특강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입시, 병역, 취업 등 청년세대들의 불공정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에 의문을 가지는 각종 사례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능력이나 성과는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쉽게 자신을 비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아울러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길 앞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절대 좌절하는 일이 없이 새로운 기회에 늘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특강을 마쳤다. 〈편집부〉

간호학과

동아리 '나누리',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나눔릴레이' 캠페인 펼쳐~

우리 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나누리'(책임교수 김종임)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함께 5월 2일 ~ 3일 양일간 대학 본관 1동 로비에서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나눔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나눔릴레이' 캠페인은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인 조혈모세포를 KONOS(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 및 추후 기증에 동의한다는 캠페인이다.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현재 국내 이식 누적 대기자는 5,000명 정도이고, 매년 500여 명이 신규 발생하고 있어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50만 명까지 기증 희망 등록을 받아 안정적인 조혈모세포 기증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나누리' 동아리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우리 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인 '나누리' 학생들이 솔선수범해 행사에 참여하고,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270여 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다.

동아리 회장인 김정인(간호학과 2학년) 학생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며,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혈액암 환우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나누리'는 매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나눔릴레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부〉

경찰행정학과

2022학년도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 개최!!

우리 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괴산경찰서와 함께 경·학 교류·협력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의 일환으로 5월 12일 오후 2시 교내 잉글리쉬 홀에서 2022학년도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윤원 총장, 김동수 괴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경찰행정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원대 캠퍼스 안전순찰대'는 2012년부터 중원대 경찰행정학과와 괴산경찰서가 협력하여 이어오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경찰의 역할 중 치안서비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순찰활동 등 다양한 경찰활동 체험 및 실무 능력을 배양은 물론 괴산군의 범죄 피해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원 총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대학 대표학과인 경찰행정학과가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괴산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괴산경찰서장은 "이제 공동체 치안은 시대의 대세로 중원대와 함께하는 캠퍼스 안전순찰대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되며, 나아가 학생들은 순찰대 활동을 통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동료애, 공동체 책임감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괴산경찰서와 중원대학교 간의 더욱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과 소통문화를 만들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괴산경찰서의 감사장 시상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괴산의 야간 취약지역 순찰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과 대학 내·외에 필요한 치안 수요를 충족하고 치안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으로 지난해 우리 대학교 캠퍼스 안전순찰대 △이은솔(경찰행정학과 4) △박은정(경찰행정학과 4)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편집부〉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작업치료학과

치매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행사 개최!

우리 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충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교내 체험부스에서 5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치매 환자를 위한 일상생활 기능 보조장비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광역치매센터는 「제4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의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에 따라 '치매를 넘어 일상으로' 지역 거주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충북권역 4개 지역에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 코너를 설치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교 작업치료학과와 충북 광역치매센터가 협력하여 괴산군에서도 생활기능 보조장비에 대한 체험 및 교육 행사를 처음 마련하게 되었다.

치매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는 치매 노인이 자기관리, 집안 관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나 체계를 의미한다. 이 보조장비들은 간단하면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치매 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달력, 복약 알림기, 사진전화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치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충북광역치매센터 치매 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사업 보고서(2021)에 따르면, 이러한 보조장비 사용자의 절반 이상



▲치매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 행사 후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신체활동 증가, 인지기능에 도움, 의사소통 증가, 안전관리 개선 등의 변화를 보였으며, 사용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5.8%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작업치료학과 박경영 교수는 "중원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이 충북광역치매센터로부터 각 보조장비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체험행사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소개하고 체험해봄으로써 보조장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인지 저하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서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작업치료학과

실종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인식표 찾기 행사 가져~

우리 대학교 작업치료학과와 사회봉사단은 충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5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중원대학교 교내에서 실종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인식표 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현재 충북 치매 유병인구는 현재 31,797명(10.95%)이며, 2045년에는 21년 대비 2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충청북도 실종 치매 환자도 연평균 270여 명이 발생하고 있어, 치매에 관한 관심과 인식 개선, 치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충북권역의 치매극복선도대학인 우리 대학교는 충북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 사회',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충북'을 만듦으로써 치매 포용 국가



▲교내 실종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인식표 찾기 행사가 끝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보물찾기 놀이형식을 빌려 우리 대학교 교내 곳곳에 부착된 배회인식표를 찾아 QR코드를 찍도록 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우리 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 다양한 경품과 소정의 선물을 함께 제공했다.

배회인식표는 실종 가능성이 큰 배회하는 치매 노인들의 옷에 부착되는 것으로 발견자가 치매 노인임을 인식하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표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 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며, 추후 해당 학생들은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등록되어 치매 노인과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음을 인증받게 된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작업치료학과 박경영 교수는 "본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치매 인식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충북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의료뷰티케어학과

'제19회 2022 국제미용대회' 대상 등 다수 입상 쾌거!

우리 대학교 의료뷰티케어학과가 '제19회 2022 국제미용대회'에서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분야에서 국회의원상을 비롯한 대상, 금상, 은상 등 다수 부문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5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국제전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용산업협회,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코이코가 주관하는 2022 제36회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와 함께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종목인 메이크업, 피부, 헤어, 네일 분야로 우수한 뷰티인을 발굴해 K-뷰티 분야의 발전 및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회 수상자는 우리 대학교 의료뷰티케어학과 정예은(3학년) 학생이 메이크업 종목에서 국회의원상(특별상)을 수상하고, 피부 매뉴얼테크닉 종목에서 황수빈(2학년), 헤어 종목에서 제민지(2학년), 김경희(1학년)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피부 매뉴얼테크닉 종목에서 전현진(1학년), 홍승보(1학년), 헤어 종목에서 김민지(3학년), 류희나(4학년) 학생이 금상, 네일 종목에서 이혜정(3학년), 조지용(3학년), 한현덕(3학년) 학생이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문지선 교수도 이번 경연에서 뷰티 문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지도자로 선정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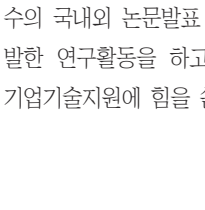
▲ '제19회 2022 국제미용대회'가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의료뷰티케어학과 김용신 지도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이 국제미용대회에서 대거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교수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는 것이기에 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과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맞춤형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항공기계공학과

안석환 교수, 한국동력기계공학회 논문 발표 우수상 수상!



항공기계공학과 안석환 교수

우리 대학교 안석환(항공기계공학과) 교수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통영 스탠포드 호텔엔리조트에서 열린 '2022년도 한국동력기계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동력기계공학회 논문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 교수의 이번 수상은 '스테인리스강에 발생한 잔류응력의 측정법에 따른 비교'에 관한 논문으로 엠와이엠(김태근)과 함께 연구한 성과의 일부이다. 본 논문은 스테인리스강 소재에 쇼트피닝을 실시한 후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기계부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쇼트피닝의 효과를 여러 가지 잔류응력의 측정법을 통하여 측정 및 분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피로강도 및 수명 향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복하중을 받는 기계 부품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표면개질에 따른 압축잔류응력을 여러 가지 평가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도 한국동력기계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논문 발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안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우수한 성과로서 기대가 된다.

한편 안 교수는 재료특성 및 피로파괴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으로 관련된 다수의 국내외 논문발표 및 저역서 집필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후학양성 및 기업기술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편집부〉

사회봉사단

2022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우리 대학교 사회봉사단(단장 이상열)은 지난 4월 5일 대학본관 앞에서 중원대 RCY 동아리와 함께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혈액 절대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우리 대학교 RCY 동아리 학생들이 솔선수범해 헌혈을 실시하며, 학교 교직원과 선·후배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여 4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이상열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며, "중원대의 동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CY 동아리 학생들이 헌혈을 격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회봉사단은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매학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종학생회

'예술작품 공모전 Artist, j.w' 행사 개최!

우리 대학교 제11대 총학생회(회장 한상훈)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작품 공모전 Artist, j.w'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주 접하지 못한 문화 및 예술 활동을 통해 단조로운 학교생활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 분야는 △일러스트 △그래픽 △스케치 △창조물 등으로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 카카오톡 채널에서 접수된 예술작품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전시회를 열어 학생 투표와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4월 22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개최한 '예술작품 공모전 Artist, j.w' 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상훈 총학생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대학교의 숨어있는 창의적 인재 발굴 및 학교생활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개최 및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도움을 주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우들의 유대감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박물관

4월 봄맞이 문화가 있는날 전시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인간, 자연-황연화 초대전 개최



▲ "4월의 문화몽(夢) 자연이 주는 쉼" 포스터.

우리 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주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박물관 문을 활짝 열고 다양한 전시 연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4월 27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4월의 문화몽(夢)-자연이 주는 쉼"을 주제로 〈인간, 자연-황연화 초대展〉 개막식과 아티스트 토크, 공연체험-봄 with 힐링 콘서트, 문화체험-나만의 반려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되었다.

이번 〈인간, 자연-황연화 초대展〉은 2022년 4월 22일(금)부터 6월 30일(목)까지 개최 되었으며, 작년 겨울부터 작업한 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캔버스에 추상적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다양한 유년시절의 추억들을 형상으로 표현한 평면 회화를 선보였다.

작품들은 공통의 주제인"인간+자연"과 부합되는 어린 시절의 종이배, 종이비행기를 그려 꿈을 표현하고, 화병에 꽃의 향기를 담은 다소 고태미(古態美)가 나는 항아리와 기명절지도, 연, 산수, 화조 등은 전통적 향기가 가미된 현대회화로서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황연화 교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동양화와 미술사를 전공하였고, 20회의 개인전과 각종 국제전,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미국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였고, 세계미술공모전 그랑프리, 우수청년작가선정, 소비자평가대상 등을 통해 활동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물관은 2022'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을 통해 5월부터 〈자연을 품은 박물관, 문화와 通하다〉와 관련된 교육, 공연, 강연 등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지역민들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장료 및 체험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박물관(http://museum.jwu.ac.kr) 또는 학예실(043-830-828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 선포식 개최!

우리 대학교가 4월 28일 본관 회의실에서 '우리 대학교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대학 구성원들의 기후 위기와 생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결의를 다졌다.

그린캠퍼스 추진사업단 이홍찬 교수는 '우리 대학교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 추진방안'에서 '탄소중립 캠퍼스 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구축 및 학교 운영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가며 지역혁신을 선도할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황윤원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탄소중립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녹색경영을 학교 운영의 기본 ▲전체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 대상 녹색인재 양성 추진 ▲저탄소, 에너지 절감 기술과 인프라 완비 ▲녹색생활 실천, 탄소중립 캠퍼스 문화 전파 등을 선언했다. 〈편집부〉



▲탄소중립 캡퍼스 구축 선포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우리 대학교가 6월 15일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우리 대학교 주요 부서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이 참석하여 우리 대학교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사업 현황 및 대학과 지역사회 간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개발하고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상열(대외협력실장) 위원장은 "대학은 지역사회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2학년도 제1차 중원대학교 지역사회 협력위원회 개최 사진.

JWU Convention

JWU 협약식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가 4월 14일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반주현, 이하 '엑스포조직위')와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의 주요내용으로는 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지역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으로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학생들의 단체관람은 물론 국제학술행사 참여, 통역·안내 등의 자원봉사 지원 등을 통해 엑스포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협약체결!

우리 대학교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 이하 충북중기청)은 4월 19일 본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대학교 황윤원 총장과 충북중기청 윤영섭 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서명하고 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탄소중립 교육 · 문화확산 위해 맞손!

우리 대학교와 충북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교무 회의실에서 5월 2일 '탄소중립 교육·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탄소중립 캠퍼스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기반 확충 협력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 확대 △학교 운영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녹색 교정 △대학 구성원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탄소, 에너지 절감 교육을 위한 협력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골자로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연극영화학과–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MOU 체결!

우리 대학교 연극영화학과가 5월 10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미디어활동과 취·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미디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 미래 농업농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중원대4-H 창단식 개최!

우리 대학교는 5월 17일 '중원대학교4-H회 창단식'을 상생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충북 미래 농업농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 농업농촌 젊은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교류협력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문화행사 공동 추진 △충청북도 4-H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지원 △기관별 홍보콘텐츠 및 홍보서비스 교육 홍보 연계 협력 등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알에이치포커스, 항공전문인력 양성 맞손!

우리 대학교는 5월 24일 항공기 전문회사인 (주)알에이치포커스(대표이사 고이근)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항공산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항공산업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및 활용 ▲현장실습, 인턴쉽 지원 및 대학의 우수인력 취업기회 제공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학 · 군 제휴 협약체결!

우리 대학교와 육군학생군사학교는 5월 26일 교내 교무회의실에서 학·군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학·군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 중원대학교 군사학과 상호교류 지원 및 국방 관련분야 우수 인재 양성 ▲자원의 활발한 교류 및 시설사용에 대한 지원 등으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 린이직업대학교(中国临沂职业学院)와 업무협약체결!

우리 대학교(총장 황윤원)와 중국 린이직업대학교(총장 안평허)는 5월 31일 교내 원격지원센터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공통 관심 분야 연구 협력 ▲ 교직원 및 학생 상호 교환 ▲ 양교 관심 분야의 세미나, 워크숍 및 기타 학술회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 ▲ 간행물 및 정보 교환 ▲린이직업대학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대학교 편입학 과정 프로그램 등으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낫소와 스포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맞손

6월 8일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국내 대표 스포츠용품 전문회사인 (주)낫소와 스포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컨설팅 서비스 지원 협력 ▲체육용품 지원 협력 ▲발전기금 후원 협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학생 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대면 수업에 적응하니 어느덧 종강 후 여름 방학이네요. 학우 여러분께서는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생각했던 성적이 나오셨나요? 저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여 대면 수업에 적응하려고 하니 정신없이 흘러가 아쉬운 학기가 된 거 같아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더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꿀팁!! 학우 여러분께만 공유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전민아 기자 jma7975@naver.com

자격증 준비



학우 여러분 중에 자격증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학우분들! 자격증은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며 남들보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나중에 취업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도 미래를 생각하며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이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자신의 직업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고 방학 중에 필요한 자격증을 꼭 취득하세요!~

취업정보 알아보기



현재 3, 4학년이 된 학우 여러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취업에 관해 관심이 커지실 겁니다. 정규 학기에는 많은 양의 전공 및 기타 교과 공부 때문에 별도 시간을 마련하여 취업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기업 채용의 사전 정보를 알아보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



요즘 사회에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공부 중 하나가 외국어 공부입니다. 꼭 영어가 아니어도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외국어 회화가 아니더라도 토익, 토플, JLPT, HSK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돈 없고 회화와 시험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정도의 여유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학우 여러분은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언어를 익히고 회화 능력도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모전 준비



공모전 준비는 단기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최대 4개월까지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제 및 전체 계획을 설정하는 일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방학에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학과와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어 취업을 위한 입사 절차 중 면접 전형뿐만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도 자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



“봉사 시간이 필수가 아니어도 꼭 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학우 여러분 집중! 우리 학교는 졸업 요건에 비교과를 제외하면 봉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 활동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취업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 부분에서 자신이 단체활동에서 어떠한 활동 및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경험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준비



학기 중에는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어트 목적도 좋지만, 운동하면 우울증 예방, 혈액순환 개선,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학 때 운동하며 체력을 길러 놓으면 학기 중 공부할 때 효과를 볼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휴식도 챙길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도 놀고 싶고 연말·연초에 많을 법한 지출에 대비해야 할 때 마냥 아르바이트하기에는 조금은 아쉽고 추가적으로 스펙을 쌓고 싶을 때는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됩니다.

인턴이 아니더라도 인턴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근무환경이 쾌적하여 행정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스펙까지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전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일정이 다르고 일반선발과 특별선발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조건으로 지원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각자 지역을 잘 살펴보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취미 활동



방학에는 학기 중에 하기 힘들었던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달려온 학기가 끝나고 쉬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로봇하고 달라서 일과 공부만 한다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중에 때 하지 못한 자신의 취미활동하거나 학기 때 부족한 부분인 잠을 자거나 색다른 수업인 캘리그래피, 그림 그리기, 요리 수업 등을 참여하면서 쉬어가는 기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학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알차고 보람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계획을 실천하는 여름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면, 중원대학교 어떠신가요?

중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전체 대면수업을 진행했는데 다들 1학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3월 개강 첫날! 너무 오랜만이라 교수님들도, 학우 여러분도 모두 표정에서부터 설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기중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고 의미 있는 1학기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아쉽고 속상했던 부분들을 이번 학기 학교생활로 모두 풀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비 기자 dbnml5321@naver.com

축구부,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우리 대학교에는 자랑스러운 축구팀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뛰며 흘린 땀을 춘계대회에서 쏟아내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을 제외하고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승리를 쟁취하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생으로 더 자랑스럽고 크게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준우승하고 돌아온 선수님들과 고생하신 코치, 감독 선생님들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과 지원금, 최우수 선수상 등 수상까지 진행하고 준비한 헌정 영상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생하신 선수님들!! 우리 학교에 자랑스러운 선수님들입니다. 항상 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춘계대회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봉사단, '사랑의 헌혈' 행사





뉴스를 통해 '피가 부족하다. 헌혈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 등의 기사를 보고 올해에도 중원대학교는 헌혈 차를 학교로 불러 돕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원했는데 자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명부를 작성해놓으면 순서가 되었을 때 연락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과 교수님들, 교직원분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로 시간이 다되었어도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헌혈 차가 주기적으로 학교에 오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다면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조혈모세포 기증 서명 캠페인





학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관에서 조혈모세포가 무엇인지, 기증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기증 동의 여부를 물어보신 다음 동의하면 채혈을 진행하면 끝이 났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골수 기증, 신장 이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헌혈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찬 행동에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많았으면 합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약 2년 만에 다시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결 처리가 어려워 전 교생들이 모두 참여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선전은 체육대회 2주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관련 학과 선후배가 모두 나와 응원하는 모습, 경기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페어플레이와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기를 끌어올려 정말 신나는 중원대학교 체육대회였습니다. 체육대회 이틀 동안은 총학생회에서 먹거리 부스, 체험 부스, 푸드트럭, 헌혈 부스 등 다양한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은 어땠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간호학과 21학번 이주희

Q. 올해는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 때 좋은 점은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씻은 후 가방 챙기고, 옷을 입은 다음 강의실로 가야 하지만 작년에는 씻고 옷만 갈아입은 다음 책상 앞에 앉으면 끝이었기 때문에 여유로워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대면 수업이 더 좋았습니다. 동기들의 얼굴을 매일 보고 교수님과 소통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밌었고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과 선후배님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돼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 행사 중 가장 재밌었던 행사는 무엇인가요?

저는 체육대회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전공 공부로 너무 지쳐있었는데 예선전에서부터 학과가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닌 열심히 싸웠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 모두 박수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치료학과 22학번 김철우

Q. 대학교에 입학하고 전체 대면 수업이 되었는데 어떤가요?

코로나로 고등학생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진학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설레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대학 생활이 시작될 것 같아서요.^^ 역시 대학 생활하면서 선배님들과 많이 만나고 활동,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가까운 관계가 된 것 같고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기대가 큽니다.

마치는 글

기사를 쓰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엔 우리 모두 이겨내고 다시 활기를 갖춘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4개월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즐기셨으리라 생각되고 방학 기간도 잘 보내고 밝은 모습으로 2학기에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이후 2년 만에 첫 체육대회



전민아 기자 jma7975@naver.com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이번 학기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익숙했던 저희에게 정상적인 대학교 생활은 새롭고 하루하루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양의 첫 대면 수업에는 긴장감과 강의실에 대한 신기함 등 꼭 다시 신입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학우 여러분은 체육대회 때 즐거우셨나요? 언뜻 본 학우분들의 표정이 밝아 보여 보는 제가 즐거웠습니다! 2년 만에 처음 하는 체육대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하는 준비 과정과 더운 햇빛 속에서도 학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고생하신 한결 분들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2학기 때 축제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설레고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아! 사정 때문에 체육대회에 참가를 못 하신 학우 여러분들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체육대회의 즐거움을 같이 즐기기 위하여 진행했던 부스들과 체육대회에서 했던 종목, 1등을 한 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 대회 때 진행했던 부스는 총학생회 본부 부스, 치매예방 프로그램 부스, 항공 단대 부스, 널스 부스, 임상병리학과 동아리 연합 부스, 다온 부스, 일윤..음료 줘.. 부스, zi존융디S2 부스, 드론 동아리 부스, 취창업 프로그램 안내 및 괴산군 일자리 센터와 동동 기업체 채용설명회 부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부스, 마음건강종합검진 및 상담 부스 등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본부 부스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부스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사용하는 생활기능 보조 장비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항공 단대 부스에서는 무알코올 칵테일과 솜사탕 판매와 격파, 물풍선 등 각종 게임 후 간식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널스 부스에서는 과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 후 과일 에이드를 증정하며 간호 관련 퀴즈를 진행 후 간식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상병리학과 동아리 연합 부스에서는 채혈 및 혈액 검사 결과와 혈액이 담긴 튜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온 부스에서는 미스트와 향수 만들기, 헤어 스타일링, 핸드 마사지, 네일케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윤..음료 줘.. 부스에서는 아이스티, 커피, 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zi존융디S2 부스에서는 출장 찍사와 인생네컷 촬영, 디자인 소품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론 동아리 부스에서는 드론 시뮬레이션 체험과 다트를 이용한 게임 진행, 간단한 간식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취창업 프로그램 안내 및 괴산군 일자리 센터와 동동 기업체 채용설명회 부스에서는 취창업 센터 프로그램 상담 진행과 채용설명회, 여성 일자리 센터 상담 및 채용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부스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저시력 장애인 체험, 청각장애인 체험,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음건강 종합검진 및 상담 부스에서는 정신건강 인식조사 및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진행한 종목은 축구, 족구, 발야구, 피구, 탁구 그리고 e스포츠인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리그오브레전드가 있었습니다. 체육 대회 중에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규칙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후 이번 체육대회의 승자인 종목별 1등 한 학과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경기 규칙에 대해 알려드려요!

축구



1. 전 · 후반 20분, 휴식 10분(결승전은 전후반 25분, 휴식 10분)으로 진행합니다.
2. 직접 골이 가능한 경우는 페널티킥, 골킥, 킥오프, 코너킥, 직접 프리킥입니다.
3. 직접 골이 불가능한 경우는 간접 프리킥, 스로인입니다.
4. 오프사이드 규칙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골킥, 스로인, 코너킥입니다.
5. 심한 몸싸움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행위 /일부러 다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반칙으로 인정합니다.
6.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이탈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7. 두 골포스트와 크로스바 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골로 인정합니다.
8. 인플레이 중인 골키퍼는 볼을 손으로 소유한 후 6초 이상을 머물 수 없고 볼을 손에서 떨어진 후 재차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9. 페널티킥 시 키커는 달리는 도중의 속임동작은 허용되나 마지막 동작에서는 속임동작을 불허합니다.

족구



1. 15점제 3판 2승제로 진행합니다.
2. 포인트 점수 동일시(듀스인 경우) 2점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3. 족구 서브 진행 시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로 진행합니다.
4. 바운드와 서브의 공 터치는 3회 이내에서만 허용합니다. (그 외 실점)
5. 공은 무릎 아래 목 위로만 터치 가능합니다.
6. 같은 사람이 2연속 터치는 불가능합니다.
7. 바운드는 2회, 선수의 볼 터치는 3회 이내로 한다.
8. 행위를 실시한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를 한 팀이 바로 실점
9. 네트 터치는 공격, 수비와 관계없이 신체에 부착된 어떤 것이라도 터치 때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 행위에 방해할 경우 실점)
10.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드되거나 타 물체에 닿으면 실점이다.

피구



1. 15분 3판 2선 제로 진행합니다.
2. 15분이 지났을 때에 게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남은 남학생의 수로 승패를 정합니다.
3. 공격의 선공은 가위바위보로 정합니다.
4. 남자가 전부 OUT 될 때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5. 같은 편 여자는 같은 편 남자에게 패스할 수 없습니다.
6. 최종으로 남자만 남았을 경우만 남자는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탁구



1. 15점제 3판 2승제로 진행합니다.
2. 탁구대에 손을 짚을 때/ 서브 중 공이 네트를 건드릴 때 1번 경고 2번 실점.
3. 공이 테이블 밖으로 나가는 공은 안칠 경우 득점.
4. 진행 중 공이 네트를 맞고 들어가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5. 서브는 대각선으로 진행해야 한다.
6. 서비스권이 결정되면 2점 득점 시 서비스를 교대하여서 진행합니다. 다만 듀스 10대 10 동점일 때 1점마다 교대하게 됩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1. 아이템 사용을 금지합니다. (게임 중 맵 안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사용 가능합니다.)
2. 캐릭터는 무작위 제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맵은 인기 랜덤입니다. (보물 맵이 나오는 경우 무효 처리 및 재경기)
4. 예선전은 단판이며, 결승전은 3판 2승으로 진행합니다.

발야구



1. 준결승, 결승전은 9회 말로 진행합니다.
2. 발야구 경기장 규격은 베이스 간격 10~12m입니다.
3. 경기 인원은 포지션별 10명입니다.
4. 최대 2루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5. 도루는 없습니다.
6. 주자보다 공이 먼저 홈베이스 근처에 오게 되면 아웃으로 인정합니다.
7. 콜드게임 (10점 차이가 나면 경기 종료) (단, 결승 경기 제외)

1위 학과를 소개합니다

축구 1위 학과



스포츠지도학과
18학번 송용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학과를 대표하여 소감을 말하게 된 송용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별다른 행사를 즐길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체육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도 컸었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체육 대회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느라 더운 날에 몸 고생, 마음고생하시면서도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 스포츠학과가 축구 종목을 우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팀 선수들과 응원해 주신 교수님분들, 스포츠학과 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학과 학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구 1위 학과



의생명과학과
16학번 전주형

안녕하세요, 의생명과학과 학회장을 맡은 16학번 전주형입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 거의 2년 만에 학과 학생들이 처음 모여서 힘을 합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라운드에서 우승을 해본 것이 처음이시라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후배들도 기대치 못했던 일이라 더욱이 신이 나고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줘서 우승을 할 수 있었지만, 굳이 MVP를 뽑아보라고 하면 21학번 김지윤 학생과, 22학번 양재혁 학생이 우승 주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학과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모두 최선을 다해주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끝으로 지윤이, 고은이, 정연이, 수빈이, 보영이, 이슬이, 호준이, 재혁이, 건이 모두 고생했고 축하한다고 말해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생명과학과 파이팅!

족구 1위 학과



작업치료학과
16학번 윤재욱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업치료학과 윤재욱입니다. 체육 대회 때 족구를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경기 때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과 선후배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른 누구보다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는 솔직히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해보니까 팀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첫 경기에서 이기고 난 후 1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팀이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서로 합이 안 맞았던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탁구 1위 학과



의료공학과
17학번 김성수

안녕하세요. 의료공학과 17학번 김성수입니다. 평소에 탁구를 즐겨 쳤기 때문에 탁구 준비를 위해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학교에도 탁구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M2 11층에 위치해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진행할 때는 본관 1층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4학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체육대회였는데 마지막을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종목별 상금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발야구 1위 학과



스포츠지도학과
19학번 윤소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학과를 대표하여 소감을 말하게 된 윤소정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매주 2~3회씩 모여 연습하고 다 같이 팀워크를 맞추며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학과 특성에 맞게 서로 지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1등 한 기분도 좋지만, 이번 체육대회로 학과 후배 혹은 동기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고, 성취감 혹은 동기부여 등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팀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열심히 노력했기에 결과가 따른 거 같습니다.

E스포츠 크레이지 아케이드 1위 학과



경찰행정학과
20학번 채유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대표하여 소감을 말하게 된 채유빈입니다. 이번 중원대학교 체육대회에서 게임 부문 크레이지아케이드에 1등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수고한 우리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연습했던 노력이 1등까지할 수 있어서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 대회때 진행한 종목들의 규칙과 1위한 학과대표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이글은 보신 분들은 다음 체육대회에서는 규칙을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체육대회라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의 인터뷰를 끝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총학생회 한결 총학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제11대 총학생회 '한결' 회장 한상훈입니다.

이번 체육대회(2022학년도 한마음 체육대회 "중원의 봄")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년 만에 진행하는 체육대회다 보니 그동안 이어져 오던 준비 파일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둘째, 국장들과 저 포함하여 체육대회 및 큰 행사를 진행을 못 해본 인원도 있고 저도 1번 경험해 보고 군 복학을 하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기억을 더듬어 가며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준비 부분이나 진행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갑자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체육대회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하는 체육대회인 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주셔서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많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 한결 부총학회장



안녕하십니까, 제 11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장문찬입니다. 먼저 체육대회를 빛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이지만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에 나름 활기가 도는 체육대회로 만들어진 것 같아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였다 보니 확실하게 감이 다가오지 않았고, 이에 나름대로 자문하며 알아보고, 머리를 모아 기획했다는 점이 다른 부분보다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께 기대에 못 미치는 체육대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에 아쉬움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하여 전보다 더 나은 총학생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NCLEX-RN과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와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봐요!



코로나19

다문화 사회에서의 팬데믹 발생은 전염성 질환이 만연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사회 및 유동인구에 대하여 경계와 심리적 저항, 차별적 태도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마찰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 사회에서의 팬데믹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중원대학교에서는 글로벌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인 NCLEX-RN가 있습니다! 그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전염성 질환과 팬데믹이 다문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지원 기자 jw010426@naver.com

Q. 우선,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NCLEX-RN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엔클렉스 3학년
회장 최지원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엔클렉스 동아리 3학년 회장 최지원입니다. 우리 중원대학교 NCLEX-RN 동아리는 해외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고 서로의 꿈에 있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우선 NCLEX-RN 동아리의 경우 논문 작성을 함께 참여해 직접 논문 저자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내 학술제와 학회 투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간호사에 대한 정보교류 활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선·후배 간의 정보교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 교류와 더불어 토익스터디 활동등 동아리 부원들이 서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목도모 활동을 통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즐기며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동아리입니다!

Q. 동아리 전담 교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NCLEX-RN 전담 교수님은 간호학과 '김혜경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직접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주시고 부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주시며, 직접 해외 간호사와 임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는 우리 동아리를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 이미지는 어떻게 변했나요?



엔클렉스 2학년
회장 정지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키워드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키워드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0년 인천에서 길을 가던 다문화가정 2세에게 시민들이 '코로나'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하고 다문화가정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챌린지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아시아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이다 보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외국 현지 사람들로부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와 같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심한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엔클렉스 2학년
황준상

우선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서로의 책임을 묻고 갈등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사태의 해결 속도를 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평가하기보단 모두가 힘을 합쳐 현재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다문화 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떤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엔클렉스 2학년
홍아름

팬데믹(Pandemic)이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은 약 100년 전 가장 많은 사망자를 초래한 스페인 독감사례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독감은 나라 간의 무역을 통한 인간과의 접촉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현재 다문화 사회 속에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바이러스는 더욱 멀리, 그리고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이렇듯 인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바이러스도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사회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각나겠지만 사실 긍정적인 변화도 여럿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며 자국에 방문하지 못하여 우울감을 보이는 가정이나 이주민들을 보았지만, 나름대로 그들만의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생성해 자국 민속일을 챙기고 만남을 지속함으로써 이전보다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끈끈히 교류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대한민국이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잠잠해지는 것도 체감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매 순간 거듭 활발해짐과 동시에 한국 IT업계의 성장을 도모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렸지만 매 순간 바이러스와 사투하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전 세계의 의료진분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보며 항상 감사한 마음과 긍정적인 모티브를 얻게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은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코로나 관련 법적 제약들이 완화되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등과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이 사회에서 더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얼굴을 맞대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여 사람 간의 신체적, 육체적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엔클렉스 2학년
민성현

우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외적인 생김새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대화를 통해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관계를 쌓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등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조금씩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실외 행사를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팬데믹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엔클렉스 2학년
이지윤

먼저 경제 악화가 심해졌고, 세계적으로 해외 교류가 적어져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도움의 손길을 놓치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의 활동이 줄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7%가 감소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 질환이 줄어드는 등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Q. 코로나19 팬데믹과 다문화 사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엔클렉스 2학년
정현서

언뜻 보기에 코로나19와 다문화 사회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청소년과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거리두기에 기반한 교류 단절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세계 시민 행동 의지·교류 행동 의지·문화 개방성의 점수 또한 코로나19가 없던 2018년 조사 때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청소년에 비해 현격히 낮았고, 지난 3년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변화 요인에 관해 물은 결과 '코로나 발생 상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상황이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과 다문화 사회는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문화 팬데믹에서의 사회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엔클렉스 2학년
윤금서

다문화 팬데믹 이후 크게 떠오른 사회적 문제점은 '인종차별'입니다.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가 보고된 곳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중국혐오와 편견으로 시작하여 아시아 혐오, 차별, 폭력, 외모에 대한 인종차별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비백인,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사례가 많았으며, 그게 코로나를 핑계 삼아 표면에 더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3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아 옹호 이사인 존 시프턴은 "정부는 증오 범죄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공적 봉사 확대, 관용 증진, 혐오 발언에 대항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82개국이 '정부 채택'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증오 범죄의 치안 강화에서부터 공용 메시지과 관용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인종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Q. 전염성 질환,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도 겁내 하는 걸까요?



엔클렉스 2학년
부회장 홍의연

자가용, 기차, 배, 비행기 많은 이동 수단으로 우리 사회는 좁아지다 못해 전 지구가 한 마을이 되어가는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졌습니다. 사스, 메르스처럼 한 국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온 세계를 뒤흔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감염병은 수많은 감염자를 거치면서 강력해진 때도 있었고, 수많은 사망자를 초래한 경우 뉴스를 통해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는 감염병 그 자체가 공포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Q. 코로나19는 다문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내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보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모든 보건소 업무를 셧다운하고 오로지 선별검사에만 주력하다 보니 1차 병원에서조차 진단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전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마스크 5부제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턱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 또한 각 약국에서의 처사가 매우 달라 어렵게 줄을 섰음에도 받을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건강보험조차 받을 수 없어 소외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20년 초로 기억을 되돌리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라는 의미에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했거나 입국한 사람을 격리하는 방법으로 감염병을 막아보려 했지만,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감염병으로 미국과 같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서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저 동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증오, 폭력에 시달렸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Q.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은 다문화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엔데믹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원숭이두창, 소아급성간염 등 새로운 전염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빠르게 파괴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은 예측조차 불가할 만큼 더 강력하고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수단은 더 빠르고 쉽게 발전하면서 확산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사각지대는 점차 적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사회는 최대한 빠르게 전염병을 제어하고 국가를 봉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적인 감염병의 정체를 밝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전염병을 연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백신제작과 치료제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대안을 마련하고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다문화 사회와 간호학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엔클렉스 3학년
강은지

간호학과 학생은 대상자 개개인에게 맞는 간호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간호를 공부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기에 다문화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유학생 등을 이해하여 그들에게 맞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문화의 차이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기에 간호학과 학생은 이들이 어려움 없이 간호를 제공받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Q. 팬데믹 선언 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다문화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까요?



엔클렉스 3학년
부회장 박지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확산은 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더욱 심화됐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등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면 스마트폰을 켜고 원격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기 작동도 복잡한 데다 낯선 단어들이 많아 툭하면 오류가 납니다. 또, 새로 받은 교과서를 펼쳐보지만 긴 문장으로 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강의나 말 속도가 너무 빨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최대한 자주 듣고 말해야 하는데 원격수업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 다문화 국제 교육교류 담당 이은지 장학관에 따르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학사 일정 변경이라든지, 코로나 단계에 따른 지침 그다음에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방법 이러한 안내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그늘은 학습뿐만이 아닙니다. 다문화 가장 아이들은 도움을 받을 친구조차 없어 더 막막해합니다. 다문화가정과 중도 입국 아이들에게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낯선 한국 생활 속에서 기대고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보다 낯설고 두려운 한 해를 보냈을 아이들이 돌아온 학교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Q. 전염성 질환과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이 다문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엔클렉스 3학년
반수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거리두기에 기반한 교류 단절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인종·종교·문화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지난 3년간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응답자(전체의 42.6%)를 대상으로 변화 요인에 관해 물은 결과 '코로나 발생 상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주민 관련 사건 사고, 국내 경제상황, 주요 국가와의 관계,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 이주민 지원정책도 예시에 있었지만, 코로나 발생 상황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모 대학교의 정부관계 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물결이 지역화로 선회하는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은 초국적 차원에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해졌고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해졌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Q. 우리는 왜 다문화 사회와 팬데믹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엔클렉스 3학년
김체영

2020년 COVID-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바이러스의 발생지라고 예상되던 중국 우한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도 그 혐오에 동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한에 국한되어있던 혐오는 점차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 일본까지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며 생김새가 비슷하므로 더욱 혐오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경찰에 신고된 증오 범죄 가운데 아시아인을 노린 범죄가 269건으로 전년(69건)보다 30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팬데믹으로 인한 동양인에 대한 잘못된 분노의 표출이 지쳐있는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는 차츰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언제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날지, 그리고 그 파급력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와 비슷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지금의 아시안 혐오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올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와 팬데믹의 연관성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9호 2022년 07월 20일 수요일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하랑' 항공운항학과 홍보부 'CIELO'를 소개합니다!



중원대학교를 대표해 대학 주요 행사 의전,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참가,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홍보대사 '가람' 처럼 각 학과도 홍보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하랑' , 항공운항학과 홍보부 'Cielo' 입니다. 지금부터 '하랑' 과 'Cielo' 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기자 rladnwls5004@naver.com

항공서비스학과 '하랑'



항공서비스학과 20학번 문영빈



항공서비스학과 20학번 유현서



항공서비스학과 20학번 차유민

Q. 우선 중원대학교 홍보부 '하랑'을 소개해 주세요!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하랑' 은 "하늘을 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8기까지 홍보부 하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입시생을 위해 저희 항공서비스학과 뿐만 아니라 중원대학교 홍보를 위한 활동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Q. 홍보부 '하랑' 조직도 및 역할 분담을 설명해 주세요!

'하랑' 조직 및 역할분담은 부장, 차장 그리고 총무, 서기, 기획, 사진촬영 및 보정, 피피티 제작, 영상 촬영 및 편집, 홍보 글 작성, 포스터 제작과 벤치마킹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서비스학과는 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한 학과로 SNS 부서 담당이 나뉘어 있으며 페이스북/인스타/네이버카페/유튜브/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기 중 예비 후배 즉 입시생들에게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한 '강점, 학과 소개, 커리큘럼, 실습실 소개'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스터 및 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 학원 및 학교에서 진행되는 입시설명회, 입시박람회, 특강 등 입시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조금 더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Q. 홍보부 '하랑'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하랑' 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있게 말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항공사 및 호텔 등 기업 면접에 있어 그동안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랑' 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쌓고 스펙도 쌓으면서 할 수 있는 학과 최고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 홍보부 '하랑' 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중요도를 설명해 주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공서비스학과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시생들은 학과 홈페이지 및 SNS로 학과정보를 파악하기에 홍보부는 입시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속부원들은 학과 내 정보들을 다른 재학생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재학생으로 입시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Q. 홍보부 '하랑'을 하면서 뿌듯했던 적이나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유현서 학과 투어를 하면서 입시생으로 학교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가 엊그젠데 재학생으로 친구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홍보부를 하면서 더욱 자부심이 커졌고 저의 말과 행동이 입시생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차유민 저는 올해 5월 진행되었던 학과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1조 조장을 맡았었습니다. 학과 투어는 수차례 참여했지만, 조장의 역할을 처음 맡다 보니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시생들을 보니 제가 입시할 때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은 제가 다 해결해 주고 싶고, 모든 걱정거리는 훌훌 털어 내주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친해진 친구가 제게 한 질문은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선배 마스카라 뭐 써요?!" 였습니다. 많은 이야길 나누면서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다가 마지막 가기 전에 수줍게 묻는 질문이 화장품 뭐 쓰냐는 질문에 속으로 엄청 귀여웠고 그 친구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 같습니다.^^

문영빈 저는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홍보부 '하랑'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학과 내 정보들을 알려주는 선배님들이 멋있어 보였고 저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 후 학교에 입학하여 하랑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입시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랑' 은 방학 중 진행되는 입시설명회 및 입시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설명과 Q&A를 진행하면서 보인 입시생들의 또랑또랑한 눈빛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학과 투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과 투어 조장을 맡으며 제가 속한 조원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매우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도록 좋았습니다.

Q. 홍보부에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유현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았기에 만족하는 저희 학과를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열정을 가지고 어디든 도전하는 학생으로서 졸업할 때까지 자랑스러운 저희 학과를 빛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유민 우선 저는 중원대학교를 꿈꿀 때, 가장 먼저 접했던 선배님들이 '하랑'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면접과 관련된 질문 등 모든 것을 잘 답변해 주셨기에 제가 지금 중원대학교에 와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영빈 저는 '제4회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과 투어' 를 참여한 입시생이었습니다. 학과 투어에 참여하는 재학생 선배님들을 보면 즐거워 보였고 학교에서 느꼈던 만족감 및 행복을 입시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이 학교에 들어와 미래 후배들에게 저의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복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 홍보부 '하랑' 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운항학과 'CIELO'



항공운항학과 20학번 김유정

Q.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홍보부 'Cielo' 가 하는 일 및 조직도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 홍보부 'Cielo' 의 조직도는 홍보부장과 홍보부원으로 나뉘고, 기획부와 영상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는 일은 첫 번째로 학과 행사가 있을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편집 & 유튜브 업로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 PPT, 카드뉴스 및 글 작성 후 항꿈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시 박람회, 학과 투어, 학과 행사, 수시/정시 면접 도우미 등등 많은 행사에 참여합니다.

Q. 홍보부 'Cielo'를 함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먼저 입시 면접 도우미, 코엑스 입시 박람회,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투어 프로그램, 항공단대 행사, 항공데이 등에 도우미로 참석하여 알찬 대학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안 비행교육원 및 미국 텍사스에서 비행교육 중인 선배님들과 교류를 하며 정보와 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교수님 및 재학생과 많은 연락을 하며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같이 일을 하며 선후배와 부원들끼리 많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Q. 홍보부 'Cielo'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생 학교와 학과인 중원대 운항학과의 특성상 많은 입시생에게 학교와 과를 알리고,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항학과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Q. 홍보부 'Cielo'를 하면서 뿌듯했던 적이나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시 면접 때 보고 함께 학교에 대해서 상담했던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해서 후배님으로 만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편하게 가고 싶어?
비행기 탈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

Tip!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여행업계가 하늘길이 열리고 인천공항이 정상화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여행에 있어서 비행기는 시작과 끝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여행길을 편안하게 해줄 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기연 기자 2019119028@jwu.ac.kr

1. 10시간을 타도 피곤하지 않은 여행 고수의 기내 준비물

해외여행에 있어서 항상 거치는 비행기 탑승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지만, 비행시간 내내 좁은 좌석에 앉아있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비행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준비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목베개



장거리 비행시 반드시 있어야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항공사에 따라 기내 서비스로 베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통 낮고 얇아 목을 제대로 받쳐주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목베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폼, 쿠션 형태, 불어서 쓰는 베개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과 취향에 맞게 고르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버클 형태의 목베개를 추천해드립니다.

2 수면 안대



목베개 만큼 필수 아이템은 아니지만 수면 안대를 착용하면 빛차단 및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어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수면의 질을 고품질로 바꾸어 주는데 한몫 하는 아이템입니다. 눈꺼풀을 직접 압박하는 것보다는 눈 주위를 압박하는 수면 안대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눈을 덮는 천을 고무줄이 지지하는 형태가 아닌 라텍스 밴드가 완전히 머리를 감싸 눈부터 귀까지 커버하는 형태의 수면 안대를 추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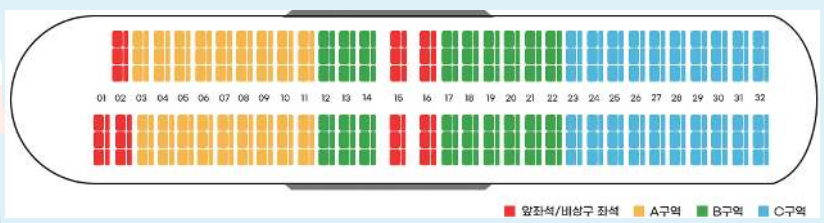
3 파스와 인공눈물



유럽이나 미국 등 먼 나라를 가는 경우 보통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고 기내는 습도가 낮아 눈이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기내에 인공눈물이나 안약, 연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다리가 저릴 때는 복도로 나와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파스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어떤 비행기 좌석이 제일 명당일까?





비행기의 좌석은 어디에 앉아서 가느냐에 따라 편안한 해외 여행의 첫 출발이거나 불편한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각 위치마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 자신에게 맞는 좌석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1 다리를 쭉 필수 있는 비상구 좌석

항공 여행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좌석으로 비상구 좌석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발을 뻗어 편히 쉬기도, 좌석을 드나들기도 쉽기때문에 매우 편안한 좌석입니다. 그러나 비상시에 비상구좌석에 앉은 사람은 비상 시 항공기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승무원을 도와 항공기 문을 열고 다른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고, 그렇기에 보통 항공사 직원이나 신체가 건강한 성인들에게 배정되는 자리입니다.

2 편하게 젖혀 누울 수 있는 맨 뒷좌석

비행기 맨 뒷좌석의 경우 화장실과 가까운 편이여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소음과 냄새가 날수 있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좌석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동체는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3열에서 2열이 되어 자리가 더 넓을 수도 있고, 또한 뒷사람이 없으니 편하게 좌석을 젖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조용하게 잠들 수 있는 앞좌석

개인적으로 비상구 좌석, 벌크헤드 좌석 등과 같이 공간이 매우 넓다는 장점을 가진 좌석들을 제외하면 무난하게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좌석입니다. 날개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날개가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좌석보다는 좀더 있지만, 가운데 좌석과 뒷좌석은 엔진 소음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앞좌석은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기내식을 준비하는 공간과 비행기 출입구 등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기내식을 더 빨리 받거나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내릴 때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옵션이 가능한 특별 기내식!

가까운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국가에 비행기를 타러 갈 때는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거나, 직접 돈을 지불하여 사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거리 비행시에는 기내식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런 기내식에도 특별 기내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별기내식은 종교나 채식주의와 건강 및 어린나이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내식으로는 식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제공하는 기내식입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제공하는 식단에는 차이가 있고 사전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기내식으로 어떤 메뉴들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1 종교인을 위한 특별 기내식

유대인식 : 유대교 율법에 따라 고유의 전통 의식을 치른 후 만들어진 음식을 말합니다. 기내에서 직접 조리를 하지 않고 완제품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슬림식 :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준비된 음식으로, 돼지고기 및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식사입니다.

힌두교식 :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힌두교의 관례, 힌두의 식사법 등 에 따라 준비된 요리입니다.



2 채식주의자를 위한 특별 기내식

서양 채식 : 육류는 사용하지 않으며 유제품 및 달걀만을 사용하여 준비된 식사입니다.

엄격한 채식 : 육류 및 유제품, 달걀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식사이며 그 외에 인도 채식과 동양 채식 등 각각의 문화에 맞는 채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건강을 챙기기 위한 특별 기내식



연식 : 소화장애 환자 또는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로 부드럽게 조리하며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당뇨식 : 당뇨병이 있는 환자를 위한 음식으로 당이 포함된 설탕, 꿀 등이 사용되지 않은 식사입니다.

유당 제한식 : 우유 내 함유된 유당 소화에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제공되며, 우유 및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식사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식사 외에도 저단백식, 저염식, 저열량식, 퓨린제한식 등 승객의 건강에 따라 제공되는 많은 특별기내식이 존재합니다.

4 어린아이들을 위한 특별 기내식



아이들을 위한 유아/아동식으로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이유식이, 아동식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햄버거, 돈가스 등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께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 대학교 각 학과 학회장들과 학생들이 학보를 통해 교수님께 전하는 감사 인사를 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학보를 보시면서 감사한 교수님께 연락 한번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지원 기자 jw010426@naver.com

간호학과 곽은미 교수님께



간호학과
20학번 박미진

교수님께서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도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먼저 연락해주시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길에 대해 조언도 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힘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시험 기간에 불러주셔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초콜릿 주시던 교수님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더욱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님께



스포츠산업학과
학회장 최가연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스포츠산업학과 20학번 학회장 최가연입니다. JR(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께 감사의 말 전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교수님들께서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학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한 명 한 명 봐주시고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스포츠 관련 자격증들이나 교육 등 많은 조언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좋게 봐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님들께



융합디자인학과
19학번 우민형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긴 시간을 교수님들과 함께 달려 저희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좀 더 세밀하게 능력을 다져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들의 지도에 따라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저희 의견만이 아닌 수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다양한 시안을 제안하고, 여러번 수정하여 졸업작품 완성까지 절반 이상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멋진 작품으로 당당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임상병리학과 교수님들께



임상병리학과
학회장 조임표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임상병리학과 학회장 조임표입니다. 어느새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시는 도중 말씀하시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간접적으로나마 임상병리사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고, 제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 있게 하기를 배웠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체험을 시켜주고자 하셨던 교수님들의 노력은 저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공운항학과 학과장님께



항공운항학과
학회장 류주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공운항학과 19학번 류주형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3월의 봄의 시작으로부터 여름의 시작 끝으로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 과의 수업과 발전에 있어서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군사학과 이경행 교수님께



군사학과
학회장 이대희

안녕하세요. 교수님 군사학과 22학번 이대희입니다. 이번년도에 신설됐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교수님께서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들께



전기전자공학과
18학번 전지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기전자공학과 18학번 전지훈입니다. 벌써 1학기가 끝났습니다.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저희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수업도 저희 의견 많이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할 텐데, 방향성과 목표를 찾는 것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님께



항공서비스학과
학회장 권슬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추억이 없어 교수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었는데 이번 학기 교수님들과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추억이 쌓이면서 너무 뜻깊은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꿈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 더욱 보람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개강 후 뵙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께



경찰행정학과
학회장 백하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경찰행정학과 학회장 백하늘입니다! 2022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 처음 진행되는 행사가 많았는데 교수님들 덕분에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 때는 더 노력하고 더욱 성장 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소방방재학과 김중휘 교수님께



소방방재학과
22학번 윤강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학과 22학번 윤강민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생들이라 아직 서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전공 분야를 배울 수가 있어서 보람차다고 느낍니다. 아직 전공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전공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습니다.

간호학과 김남영 교수님께



간호학과
20학번 최지원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도 학생 최지원입니다! 이제 종강을 하고 어느덧 3학년의 한 한기가 지나갔습니다! 매 학기마다 지도 학생들을 위해 바쁘실 텐데도 상담 일정을 한 명 한 명씩 진로에 대해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싶고, 간호인으로서의 꿈을 더욱 키워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중원대학교는 기부자님들이 출연해주신 발전기금을 학교 전략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리며 중원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이란?

중원대학교 발전기금은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업 및 외부인이 중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교육기자재, 비품, 현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종류

일반 기금	기부자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당 기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기금
장학 기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금
지정 기금	학과, 단과대학 및 대학원, 연구소 등을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되는 기금

세제혜택

중원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34조)
법인 기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 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방법 안내

1 약정서 출력작성 (홈페이지 약정서 다운로드) ▶ 2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 redguy@jwu.ac.kr / 팩스 : 043-830-8079) ▶ 3 기부금 납부

납부방법

방문납부	본교 본관 3층 대외협력팀 (M1 309호), 043)830-8071
무통장납부	국민은행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은행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분할납부	기부자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통장으로 분할 납부(자동이체)

납부문의

전 화	043-830-8071
팩 스	043-830-8079
이메일	redguy@jwu.ac.kr
주 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대외협력팀 (M1 309호)

기부자예우프로그램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 및 본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 기부금액	JWU Sponsor		JWU Honor			JWU Gold Honor	
		1백만 이상	5백만 이상	1천만 이상	2천만 이상	5천만 이상	1억 이상	10억 이상
중원대	감사 서신, 기부영수증 발급, 학보 발송	○	○	○	○	○	○	○
	골프실습장 이용권 증정	10매	50매	3년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본인)	1년 무료	2년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 무료이용	3년	5년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학교 다이어리, 달력, 학교 기념품 발송		○	○	○	○	○	○
	도서관 이용 ID 발급(본인)			○	○	○	○	○
	박물관 무료관람(본인)			1년	2년	3년	평생	평생
	감사패(장) 증정(총장명의)			○	○	○	○	○
	학교행사 VIP초청, 총장 초청 만찬					○	○	○
	특정실 명칭 부여							○
재단산하시설	강원종합박물관 입장권	6매	12매					
	가야호텔 일반 온돌룸 1박 2인 숙식 및 사우나권			○				
	가야호텔 가족 온돌룸 1박 2인 숙식 및 사우나권 또는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스탠다드룸 1박2인 숙식 및 사우나권				○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패밀리룸 1박 4인 숙식 및 사우나권					○		
	상주시 청화산 한옥펜션 1박 숙박권 또는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패밀리룸 2박 4인 숙식 및 사우나권						○	
	상주시 청화산 한옥펜션 1박 숙박권 및 제인병원 VIP 건강검진권 1장							○

www.jwu.ac.kr

학생이 먼저인 대학!

- 국내 최상의 캠퍼스
- 국내 최상의 장학금
- 국내 최상의 취업률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중원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기간 : 2022. 09. 13(화) ~ 17(토)

문의 : (043)830-8082~6 http://ipsi.jwu.ac.kr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